

사회

‘雪魔’ 이면도로·골목길 눈 안치워 빙판 사고 속출하자 부랴부랴 제설작업

광주·전남 지자체에 “능장대응” 향의 빗발

광주시와 전남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능장 대처와 안일한 대응이 5년만의 폭설을 재해로 키웠다. 광주·전남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이 ‘제왕의 길’로 변해 크고 작은 교통·낙상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복구작업은 물론이거니와, 피해 상황 파악조차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재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3일째 4일간 폭설에 동원된 살포기·그레이더·덤프·로더 등 제설장비는 모두 313대. 시·도는 확보된 연합칼슘 1143t과 소금 1만 4000㎡를 뿌리고 주요 도로(총 연장 1200km)에 쌓인 눈을 치웠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이면도로 곳곳은 비상장으로 변

했고, 시·도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는 빙판길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오후 2시15분께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 앞길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목포 Y운수 소속 시내버스(운전자사 문모씨·62)가 3차선으로 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문씨와 승객 홍모(54)씨 등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문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동구 계림동 K고 앞길에서 이모(32)씨의 무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 가던 이모(32)씨의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이날 광주지역에서만 5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빙판길 사고가 잇따르자 시·도와 각 기초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폭설에 대한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집중 성토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김모씨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제설작업이 다 된 줄 알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모씨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도로 주변이 빙판길로 변했다. 하루 평균 수백대의 차량이 오가는데, 자칫 대형 사고의 우려가 되는 만큼 제설작업을 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10여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됐다.

시·도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시·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뒤늦게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실시해 온 제설작업을 확대, 7일까지 실과

로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눈과 빙판깨기 작업을 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지난 나흘간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요 도로가 결빙구간으로 변하자 이날 1200명의 전 공무원들에게 제설 작업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폭설에 대한 공공기관의 능장대응도 문제지만, 실종된 시민의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자치단체의 제설능력이 미치지 않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시·도민들이 치워야 하는데도, 이를 공무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부 강모(여·62·북구 문흥동)씨는 “인도 위 곳곳에 ‘눈 무덤’이 쌓여 있어 의아해 했는데, 가게 주인들이 자기네 가게 앞 눈만 치우면서 옆길으로 밀어놓은 것이었다”며 “이기주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쓸쓸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오현섭 전 시장 뇌물수수 정황 추가 포착

화순 모 건설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수뢰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61) 전 여주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오 전 시장이 재임시절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2008년 화순군 모 건설업체의 건설 감리 용역 수수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건

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8월 21일 뇌물수수 및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가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마음도 추워” 연탄피워 자살

실연·취업난 ... 광주서 3명 잇따라 숨져

광주에서 연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오전 11시35분께 임모(35)씨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영주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내부에서 연탄을 피운 채 숨져있는 것을 아버지(7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의 승용차 뒤 좌석 발판에서는 타고 남은 연탄 2장이 발견됐다.

아버지는 경찰에서 “최근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찾아가 봤는데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지난 해 말 심하게 다툰 뒤 고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냐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일 오후 3시35분께에는

김모(25)씨가 자신이 세들어 살던 동구 학동 한 주택 2층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여·66)이 발견해 신고했다. 김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마땅한 직업이 없어 지내며 경제적인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9일 오후 5시25분께 김모(32)씨가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탄을 피운 채 숨져있는 것을 사촌(40)이 발견했다. 김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주일 사이에 연탄을 피운 채 목숨을 끊는 사례가 3건이나 발생했다”면서 “평소 고민거리가 있는 주변인들에게 작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212) 김종두



소망교회 목사 폭력극

서울 강남경찰은 4일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린 이 교회 최모(53) 전 부목사에 대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에 가담한 조모(여·61) 부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전 9시55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안에 있는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누워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서 신발·옷 바꿔입었다” 자수

○대형 마트의 매장에 있던 옷과 신발을 자신의 것과 바꿔치기한 20대 절도범이 범행 40분 만에 경찰에 자수.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9)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에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 의류코너 탈의실에서 매장에 있던 운동복 바지와 등산화 등 21만원 상당의 상품을 갖고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로 바꿔치기한 뒤 물레 마트를 빠져나왔다.

○이씨는 마트를 나온 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는데, 경찰에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프로축구단 입단 알선”

7900만원 뜯은 40대 女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프로축구팀 입단 알선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뜯어낸 김모(여·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한모(여·52)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상무나 광주시민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7900만원을 받아챘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업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5년 전 자신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주언어교수 되고파” 4일 광주교육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이주언어교수요원 양성교육’에 참가한 이주 여성들이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토론 수업을 하고 있다. 필리핀 등 7개국 이주여성 30명이 참가해 2월말까지 계속되는 이주언어교수요원 양성교육에서 과정을 마친 이들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문화 등에 대해 가르치게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경찰, 대구서 보이스피싱 조선족 등 4명 검거

목포경찰은 4일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조선족 최모(여·48)씨와 정모(33)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31일 대구시 남구 봉덕동 한 현금인출기에서 30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달 8일부터 총 10건의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3

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영남권 현금인출 조직으로, 관리책임 최씨가

속칭 ‘대포 통장’을 모집해 전달하면 내국인 3명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경찰청을 사칭한 사람에게 1억2000만원을 송금했다’는 피해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같은 달 31일 대구에서 현금을 찾아간 최씨 등을 검거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간통 의심 여성에 문자

불안감 줘도 처벌 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기소된 배모 씨(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려면 각각의 행위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Shin Yang Park Hotel advertisement for wedding festival. Includes text: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신양파크호텔" 객실 패키지, and Special Rate table with prices like ₩ 29,000 and ₩ 33,000.

Hanbit Gosi advertisement for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Includes text: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nbit Gosi.